

반도체 투톱, 인재상 달랐다... 삼성 '문제해결' SK '전문성'

삼성전자 대규모 정공채 유치
공통역량 바탕 다양한 직무 배치

SK하이닉스 직무별 역량 세분화
업황 등 상황에 따라 채용규모 조정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026년상반기 채용 전형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형 설계에서 서로 다른 인재상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공통 기본기를 먼저 검증한 뒤 직무 배치로 이어지는 삼성과, 서류 단계부터 직무를 세분화해 직무 수행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SK하이닉스다. 채용 전형에서 무엇을 먼저 검증하느냐의 차이가 각사의 인재 운용 방식과도 맞물려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5~26일 이틀간 삼성직무적성검사(GSAT·Global Samsung Aptitude Test)를 실시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등 1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GSAT가 창의적 사고 역량과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려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설명한다.



삼성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18개 삼성 관계사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이틀 간 2026년 상반기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감독관이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새 채용 브랜드 '탈런트 하이웨이(Talent hy-way)'를 통해 설계·연구개발(R&D) 공정·전략기획·영업 등 26개 직무 분야 신입 서류 접수를 마쳤다. 이후 SK종합역량검사(SKCT)와 인공지능(AI) 화상 인터뷰 'A!SK'를 이달에 병행 진행하고 있다. A!SK는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가치관·문제 해결 과정·직무 이해도 등을 비대면 영상 인

터뷰로 종합 평가하는 전형이다. 두 회사의 차이는 직무 설계와 평가 순서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은 공정·설계·설비 등 직무군 단위로 모집한 뒤 GSAT를 통해 공통 역량을 먼저 검증하고 면접에서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구조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서류 단계에서부터 DRAM개발·제조기술·패키징(PKG)·테스트(P&T) 등 세부 직무로 나눠 선발하고, 전형 전반에서 직무

이해도와 수행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채용 기준 차이는 채용 규모 운용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SK하이닉스는 신규 채용 인원이 2021년 3549명, 2022년 3901명에서 2023년 739명으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는 등 업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반면 삼성은 대규모 정기 공채 체계를 유지하며 향후 5년간 6만명 채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SK하이닉스의 채용이 업황과 생산 확대 시점에 맞춰 조정되는 채용 구조지만, 삼성은 비교적 일정한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채용 전략 차이는 인재를 선발하고 배치하는 방식에서도 이어진다. 삼성은 공통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무에 적용 가능한 인재를 선발한 뒤 조직 내에서 배치하는 구조로 이해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직무별 요구 역량을 세분화해 해당 분야 이해도와 경험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는 최근 HBM 중심의 생산 구조 변화와 맞물려 직무별 전문성 요구가

높아지는 점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맞춤형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설계·공정·패키지 등 각 단계에서의 역할 구분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HBM 전용 생산 기지인 청주 M15X 팹은 2025년 10월 장비 반입을 시작해 2026년부터 생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는 채용 확대 시점과 신규 생산 거점 준비가 맞물린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도 이번 상반기 채용에서 적자 여파로 중단했던 비메모리 분야 신입 채용을 1년 만에 재개했다. HBM4 생산에서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비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확보 움직임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HBM과 파운드리 등 차세대 공정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 나타나는 선발 기준 차이가 향후 인력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두산에너지빌리티, 분기 매출 '4조' 장밋빛 전망

가스터빈·대형원전 중심 수주 확대
업계, 2030년 수주잔고 48조 관측

글로벌 원전 투자 재개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수주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원전 확대 움직임이 강해지는 가운데 SMR을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신규 수주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가스터빈과 대형원전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시장은 원전 건설 확대와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수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차세대 원전 인허가 체계인 'Part 53'을 오는 29일부터 적용하면서 SMR 등 신기술 원전의 인허가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프로젝트 전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원자력과 터빈 등 핵심 기자재 발주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 전경. /두산에너지빌리티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신규 원전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대형 원전 기자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스터빈 사업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용 가스터빈 수출을 시작으로 현지 공급 실적을 쌓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기

업과 380MW급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MR은 차기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엑스에너지·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기업들과 협력 또는 공급 논의·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창원 부지에 8068억원을 투입해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2031년 완공 시 연간 20기 제작이 가능하다.

대형 원전과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수주잔고가 확대되면서 실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올해 1분기 매출을 4조658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6% 증가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19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2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수주잔고가 2030년에는 약 48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LG이노텍, 1분기 매출 5.5조... 역대 최대

영업익 2953억 집계... 전년비 136% ↑

LG이노텍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모바일 카메라 모듈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진 데다 고부가 반도체 기판 공급 호조, 차량 카메라 모듈·조명모듈 등 모빌리티 부품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LG이노텍은 1분기 영업이익이 295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수치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5조 5348억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광학솔루션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4조 61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카메라 모듈의 견조한 수요와 함께 차량 카메라의 매출이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최대치를 나타냈다.

패키지솔루션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437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비수기임에도 RF-SiP 등 통신용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공급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성능 메모리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FC-CS P 공급 확대가 지속되며 매출이 증가했다.

FC-BGA 또한 PC용 제품 중심으로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 중인 가운데, 시장 수요에 발맞춘 AI·서버용 하이엔드 제품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빌리티솔루션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487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고부가 제품인 차량 조명 모듈을 필두로 매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9조2000억원의 수주잔고를 기록한 모빌리티솔루션사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솔루션을 앞세워 신규 수주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여천NCC, 공장 가동률 60%→65% 상향

"가동률 점진적으로 상향 계획"

국내 최대 나프타 분해시설(NCC) 운영 기업인 여천NCC가 정부의 나프타 수급 안정화 대책에 맞춰 원료 조달과 공장 가동 정상화에 나섰다.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가동률 회복을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관련 제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천NCC는 공장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나프타 구매 보조금 지

원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가동률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천NCC는 지난달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가동률이 55%까지 낮아지며 추가 가동 정지까지 검토한 바 있다. 이후 정부가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자 지난 10일 가동률을 60%로 높였다.

지난 23일 금융권이 '중동 상황 나프타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점도

이번 추가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여천NCC는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원료 수급 여건 개선에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가동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아울러 중동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그리스, 알제리, 나이지리아, 이집트, 오만, 사우디 등 다양한 산지에서 나프타를 확보하며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여천NCC 관계자는 "향후 수급 상황과 정부의 지원사항을 고려하여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AI 분야 등 사내벤처 분사 추진

4개팀 선발... '개방형 성장' 본격화

LG전자가 창업 당시 금성사의 도전 정신을 계승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사업을 외부로 확장한다. 단순 육성을 넘어 유망 기술을 스타트업으로 분사시키고, 향후 협력 파트너로 키우는 '개방형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7일 LG전자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 사이언스파크에서 '스튜디오341 데모데이'를 열고 최종 스피노프(분사) 자격을 갖춘 사내벤처 4개 팀을 선발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세카'는 하드웨어 설계 데이터 오류를 탐지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했고, '머신플로우'는 코드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용 AI 코딩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프리카킴랩'은 주방 자동화 로봇과 이를 운영하는 B2B 솔루션을, '아도머'는 펌프 기술 기반의 첨단 난연 소재 설계 솔루션을 각각 확보했다.

이들 팀은 오는 7월 중 분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팀당 최대 4억원, 총 16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받는다.

/구남영 기자